

## 참억새(*Miscanthus sinensis*) 재배종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고찰

안미연, 유성열, 권용락, 장용석
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
### Study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iden silvergrass(*Miscanthus sinensis*) Cultivars

Mi-Yun An, Sung-Ryul Ryu, Yong-Rak Kwon, Yong-seok Jang

National Forest Seed Variety Center, Chungju 27495, Korea

참억새(*Miscanthus sinensis*)는 화본목 벼과 억새속에 속한 다년생 단자엽식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동쪽 해역에 자생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관상가치가 높아 정원용이나 조경용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식물이다. 억새속(*Miscanthus*)은 물억새(*M. sachariflorus*), 참억새(*M. sinensis*), 억새아재비(*M. longiberbis*), 장억새(*M. changii*)로 분류하고 있으며, 이는 종을 구분하는 화기구조가 작고,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. 그 중 참억새는 이러한 변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초장과 엽 무늬를 가진 재배품종이 많이 개발되었으며, 내한성 또한 강해 정원용 관상식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(Lewandowsk et al, 1964). 지금까지 참억새 재배품종은 엽 무늬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품종간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.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참억새 품종개발시 기존품종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기존 참억새 재배품종들에 대해 형태적 특성을 조사·분석하여 고찰해 보았다. 조사결과 가로무늬를 가진 ‘Strictus’와 ‘Zebrinus’ 품종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였으나 전체적인 모습에서 ‘Zebrinus’가 ‘Strictus’ 품종에 비해 잎의 끝부분이 늘어지는 정도가 커 처진 특성을 나타내었다. 또한, 세로무늬를 가진 ‘Cosmopolitan’과 ‘Carbare’ 품종의 경우 초장 및 엽신의 길이가 유사하였으나 엽 무늬 위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엽 폭이 좁은 세엽종인 ‘Morning Light’와 ‘Little Kitten’ 품종은 형태적 차이는 없지만 가장자리 엽 무늬 유무로 구분이 가능하였다. 반면에 ‘Adagio’와 ‘Little Kitten’ 품종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 앞으로 더 많은 참억새 재배품종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다면 신품종 개발시 기존 재배품종과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주요어 : 참억새, 재배종, 형태적 특성

[본 연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·박사연구원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.]